



몽골의 건강식품 시장 파헤쳐 보기!

몽골은 아직까지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건강 면에서 미네랄 및 영양소 결핍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요 영양소인 철분 및 비타민A, 비타민D 부족, 요오드 결핍, 과체중 및 높은 비만율, 가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고, 건강식품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 사이에 영양식품, 보조식품, 친환경 식품, 유기농 식품, 바이오 건강 식품 보조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며 건강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몽골 사람들의 식습관 현주소

2017년 몽골 국립공중 보건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 몽골 성인 2명 중 1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어린이 3명 중 1명은 비만에 속한다.
- 4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이다.
- 10명 중 9명은 하루에 400g 이하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한다.
-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이나 고혈당의 위험이 있다.
- 5명 중 4명은 탄산음료를 마신다.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잘못된 식습관과 섭취 방법에 있다. 몽골 사람들은 과일, 야채를 적게 섭취하는 반면 주로 고기와 밀가루, 지방을 많이 먹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몽골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건강 식품군을 강화하고, 접근이 용이한 「식품 강화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몽골 건강기능 식품시장 동향

몽골 건강기능 식품시장에서는 약 1,500가지의 건강식품 보조제가 판매되고 있다. 2019년 세관 수입 자료를 보면, 몽골에 총 3억 8,300만 달러에 달하는 식품 보조제가 수입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제약 공급업체와 다단계 업체(Herbalife) 등에 공급되었다.

또한, 이러한 식품들의 수입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양국가에서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150만 달러 상당의 식품 보조제가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 중 0.4%에 불과하다.

no	수입업체	시장 점유율
1	Monos parm	25%
2	Herbalife Mongolia	16%
3	Siberian health	9%
4	기타	50%

출처 : 관세청, 2019

No.	수입국가	수입 점유율
1	독일	24%
2	미국	23%
3	러시아	13%
4	이탈리아	11%
5	기타	29%

출처 : 관세청, 2019

몽골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및 보조제 현황

몽골의 국영식품 및 제약회사는 건강증진 보조제와 식품을 최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onos Parm 제약회사의 액상제품 'Tseneg'과 Teso의 비타민 'Zuv'이 있다. 몽골의 박카스라고 불리는 'Tseneg'은 면역력 증강 제품으로 피로를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제품이다. 또한, 'Zuv'는 남녀노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어서 몽골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 'Tseneg'

▲ 'Zuv'

몽골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식품 보조제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로는 Herbalife와 Tiens, Siberian Wellness 등이 있다.

- **Herbalife Nutrition Mongolia** : 미국의 자회사로서, 2011년 몽골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다. 몽골의 경우, 비만 및 건강한 식생활 분야에서 200개 이상의 그룹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몽골에서 건강식품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 **Tiens Mongolia** : 중국 회사로서 2008년 몽골에 설립되었다. Tianshi 공사는 중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 세기에 걸친 경험과 현대 과학에서 선두를 달리는 성과를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식품 보조제 및 기타 보조제품을 몽골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 **Siberian Wellness Mongolia** : 러시아 회사로서 2009년 몽골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면역 증진 및 헬스 단백질 보충제가 몽골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 Herbalife Mongolia



▲ Tiens



▲ Siberian Wellness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보조제의 경우 박카스 음료, 간기능 보조제, 녹용, 인삼, 흑마늘 추출물, 숙취해소 음료 등의 식품들이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의 박카스 도매업체인 'HIH' 이다. HIH사는 2013년에 설립되어 한국에서 비타민 음료(박카스)와 26종의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당사는 한국의 유명한 공장과의 정식 협약을 맺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제품은 HACCP, ISO 등의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최근 숙취해소제가 몽골 사람들에게도 대중화되면서 한국의 컨디션 제품도 몽골시장에서 판매가 늘고 있다.



▲ HIH 회사의 취급제품
(홍삼녹용엑기스, 어린이칼슘보조제, 석류, 홍삼, 흑마늘 제품 등)

Key Point

유목 문화로 최근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음식 소비 형태는 이전의 모습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가구의 65%가 기본 식량 충족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구입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인의 잘못된 식사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질병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건강식품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며, 관련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증가했고, 하반기는 주춤한 상태이다. 이는 국내까지 전염병 확산이 되지 않은 탓에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증가량 속도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질병의 감소, 예방, 건강한 식생활 등에 대한 몽골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진출 또한 늘어 거불만 하다.